의료나눔 희망메시지

라파엘나눔재단
Raphael Nanum Foundation

라파엘 소식

2019. 8
No. 263

2 라파엘이 만난 사람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시와 삶의 이야기'

4 라파엘 클리닉
라파엘클리닉 천안분소 개소 축복식
라파엘 삼척 이동클리닉
2019 동아리 신규봉사자 교육
환자지원소식
릴레이 봉사자 열전 – 진단검사 배선하 봉사자
환우들의 편지

7 라파엘 인터내셔널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몽골 의료진 초청연수

8 라파엘 나눔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1학기 수료식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 '싸움'
시니어 아카데미 공개강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사마르칸트의 비비하님궁전

라파엘 톡 Talk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인간의 초라함

캐년(Canyon)이라는 생소한 대자연의 품 안에 안겨 두 주간의 휴가를 즐겼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이신 자연의 품속에서 인간의 작음을 느끼고 돌아온 휴가였습니다. 어떤 조각가도 깎아낼 수 없는 절벽과 어떤 인공적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폭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고스란하게 남겨진 돌무더기들이 만들어 내는 향연, 그리고 지구라는 별이 창조된 신비를 느낄 것만 같은 지구 내면의 감추어진 힘을 마음에 담아 왔습니다.

휴가 기간 내내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야 했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출 수 없는 두려움, 당장의 자존심과 국익이 알량한 정치철학이 되어버린 초라한 인간들이 만들어 낸 불화! 하루가 멀다 하고 혐한 방송과 거짓 뉴스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방송이나 뉴스는 그나마 품위 있어 보였습니다. 철학과 문학이 꽤 발달한 문명국에서 행하는 일이라고는 잘 믿기지 않는 행태가 마음 씁쓸하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지성으로 무엇을 안다고, 그리고 확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확인했고, 네가 확인한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수준의 앎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무화(無化)되는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초라함보다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을 견디며 진리를 담고 있는 세상의 품 안에서 백 년을 살다가는 우리네 짧은 인생살이! 세상을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려 하기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 32)하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진정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2880)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T. 02-744-7595 F. 02-741-0767 E. raphaelnanum@naver.com nanum.raphael.or.kr 발행인. 김전 편집. 라파엘편집위원회

ROSA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시와 삶의 이야기’

7월 14일, 라파엘 인문학 아카데미 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는 수도자이자 시인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해인 수녀와 함께 ‘시와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김종기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2008년 대장암 수술 이후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고통과 깨달음을 담아낸 시집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에 수록된 ‘파도의 말’을 청중들과 함께 낭송하며 이날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중간에는 수녀님의 시를 노랫말로 담은 크로스오버 듀오 ‘메타노이아’의 노래도 더해져 더욱 풍성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수강생 A씨는 “요즘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수녀님께서 쓰신 시를 읽으며 강의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날 강의에는 22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워 따뜻한 치유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해인 수녀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날 강의에 소개되었던 몇 편의 시와 함께 이해인 수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 줄게
마음 놓고 울어 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 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디어질 땐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파도의 말, 이해인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바다를 보며 수도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필명인 ‘이해인’이라는 이름도 바로 부산 광안리 바다에서 따왔습니다. 바다 해(海)자를 넣고, 논어의 글귀처럼 수도자의 모습은 어진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질 인(仁)으로 지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낭송한 ‘파도의 말’은 본격적으로 수도생활을 시작할 무렵, 처음에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쓴 시입니다. 또한 제가 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문병오신 분들이 저에게 읊어달라고 한 시이기도 합니다. 울고 싶어도 못 울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더욱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 냈을 때의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배고프지 않다

기쁨의 맛, 이해인

강의를 갔다가 학생들을 만나면 ‘언제 삶이 즐겁고 행복하냐’는 질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뜻밖에 슬픔이나 시련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더 오더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때의 평화로움, 누가 나를 안좋게 말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더 행복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덕목을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실천한다면, 분명히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고운말 차림표

1)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
2) 비교하는 말을 할 땐 신중하게 하자
3)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 한탄, 불평은 자제하자
4) 애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자
5) 사람이든 사물이든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삼가자
6)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자
7) 비록 흉을 보더라도 좀 더 고운 말로 순화시켜서 하자
8) 자신을 표현할 땐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니자
9)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자
10) 기분 좋은 상징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자

제가 쓴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에 실린 ‘고운말 차림표’예요. 그 중 저는 1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말이 너무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정치인들의 말들도 그렇고요. 수녀님, 신부님들 조차도 말을 거칠게 하실 때가 있지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에도 썼지만, ‘오늘은 어제 내가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내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라는 말이 있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을 막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깎이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그래서 고운 말에도 차림표가 있다는 마음을 표현해서 이 ‘고운말 차림표’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의 말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실천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수련을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구체적 메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점차 실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각자의 ‘고운말 차림표’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라파엘클리닉 천안분소 개소 축복식

지난 6월 23일,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라파엘클리닉 천안 분소 축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교구 사제단을 비롯해 이주민, 봉사자, 지역 정계 및 의료계 인사와 지역 주민등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축복예식 봉헌(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주례)을 시작으로 서윤석 천안 분소 진료소장의 라파엘클리닉 경과보고 후, 내빈들의 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흥식 주교는 "천안 모이세 분소가 낯선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어머니의 품'같은 집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윤석 진료소장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 다른 여러 이유로 제도권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개소한 천안 분소는 개소 첫날, 내과, 외과, 치과 등 일반진료 및 X-ray촬영(대한결핵협회 지원)과 혈당 및 소변검사 등 53명의 환자가 69건의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290명을 대상으로 353건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KEB하나은행, 단국대학교 병원, 단국대학교 학생(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 간호대학, 약학대학, 몽골학과), 천안시 가톨릭의사회, 천안의료원, 천안시 치과의사회, 천안 모이세(천주교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소속)와 함께하고 있는 라파엘클리닉의 천안 분소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료장소 하나은행 천안역지점 2층(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7)
진료일정 매주 일요일 10:30~14:00
진료과목 내과, 외과, 치과 (내과 및 외과 격주 운영)
문의 02-763-7595

라파엘 삼척 이동클리닉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에 강원도 삼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인 '라파엘 삼척 이동클리닉'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라파엘클리닉을 비롯한 포스코건설과 포스파워,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약학대학,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삼척 마이스터고 강당에서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한방과 등 의료검진 활동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삼척 인근 병원으로 직접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진료를 통해 더운 여름철 삼척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 동아리 신규봉사자 교육

7월 6일과 13일, 2주에 걸쳐 라파엘센터에서 동아리 신규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6개 동아리 및 일반봉사자 등 총 138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라파엘클리닉 김창덕 대표이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라파엘인터내셔널 안규리 이사장의 라파엘 사업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나눔의 의미'를 주제로 라파엘나눔 김전 이사장의 짧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감염관리 교육 및 진료 프로세스 등 봉사자가 알아야 할 봉사 메뉴얼에 대한 교육 및 설문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라파엘클리닉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자 지원 소식

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6월	(중국/1979년생/여) 내과진료비	259,500원
	(중국/1933년생/여) 내과진료비	1,625,100원
	소계	1,884,600원
지역 네트워크	충북 외국인 무료 진료 11명 검사비 지원	216,320원
	소계	216,320원
	계	2,100,920원

릴레이 봉사자 열전

진단검사 배선하 봉사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배선하 마리아라고 합니다. 현재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틈틈이 라파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라파엘에서 올해 초부터 봉사를 시작한 새내기 봉사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참석하는 거라 과연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느낀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봉사하기를 망설이는 다른 많은 봉사자들을 라파엘로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라파엘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A. 라파엘과 저의 인연은 제 아버지와 라파엘 파견 수녀님이신 베난시아 수녀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베난시아 수녀님께서는 아버지의 중고등학생 시절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이셨고, 그 인연이 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소개로 라파엘클리닉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간호사이니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 라파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Q.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A.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저의 짧은 영어실력은 매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ㅠㅠ 그럴 때 마다 정말 제가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언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Q. 코디네이터 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코디네이터라고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한마디로, 각 층의 '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층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해결하는 등 원활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Q. 라파엘 봉사자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A. 앞으로 오랫동안 라파엘 봉사자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라파엘클리닉을 방문했던 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그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렇게나 많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라파엘을 방문하는구나'를 몸소 느꼈었고, 긴 줄의 끝을 따라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 본 광경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많은 봉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방문 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자'는 저만의 목표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라파엘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라파엘 클리닉의 활동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소 및 진료소가 개소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라파엘 천사들이 필요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환우들의 편지

익명
여기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익명
매 순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몽골 의료진 초청연수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몽골 의료진 솝트에르덴(울란바토르 송도 병원 신장내과 의사)과 오트컹싸지(국립 제1병원 신장내과 간호사)의 초청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오국환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지도로 종양학, 급성신장손상, 사구체신염 등 내과 및 신장내과 사례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연수생들이 라파엘 초청연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몽골의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1학기 수료식

7월 3일, 라파엘센터에서는 4월부터 진행된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의 1학기(주제:노인의료)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오범조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의 1학기를 마무리하는 강의가 끝난 후, 김창덕 대표이사(라파엘클리닉)의 강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학기에는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1학기 강의에 10회 이상 꾸준히 참석한 13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학기 시니어 아카데미는 '건강과 사회'를 주제로 8월 28일에 개강합니다. 개강식을 축하하며, 첫 번째 강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싸움'

7월 8일, 라파엘센터에서는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가 '싸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남녀간의 사랑싸움부터 죽음을 불사르는 격렬한 싸움까지 다양한 '싸움'을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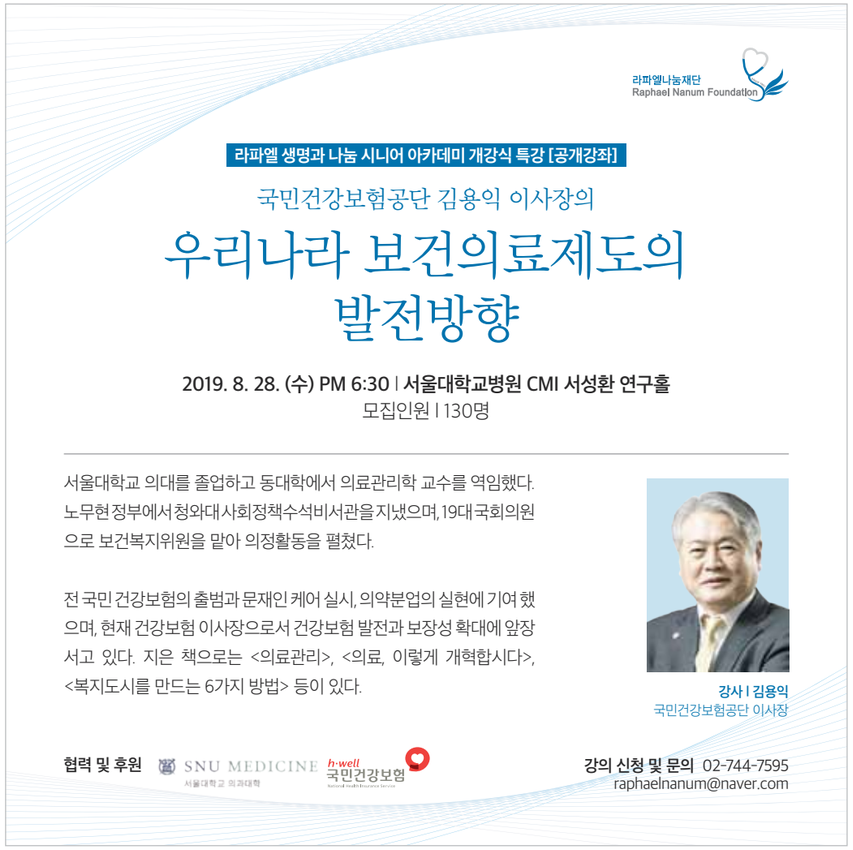
프란시스코 고야의 '남성들의 싸움'을 시작으로, 조셉 라이트와 토레의 '아이들의 싸움'을 표현한 작품, 사자, 뱀 등 '동물과의 싸움'을 그린 페테르 파울 루벤스와 프란츠 폰 슈투크의 그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널드 뵈클린,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여자를 두고 벌이는 다툼'과 '게임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그린 얀 스테인의 작품, '여자들끼리의 싸움', '결투 신청', '스포츠 경기로서의 싸움인 레슬링'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싸움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수강생은 "갈등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작품에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서 실제 그 싸움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9월 9일, '여자가 그린 그림'을 주제로 계속됩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 02-744-7595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식 특강 공개강좌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일시 8월 28일(수) PM 6:30
장소 서울대병원 CMI 서성환 연구홀
문의 02-744-7595 또는 raphaelnanum@naver.com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싸움'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사마르칸트의 비비하님궁전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다. 그러니만큼 여행자에게는 볼 것도 많고 얻어듣는 이야깃거리도 풍부하다. 특히 이슬람 건축은 정말 대단하다.아랍에서 수학이 발달했으니 이슬람 건축 중에는 당연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축이 많다. '이 민족을 알고 싶으면 건축을 보라'..... 사마르칸트 지역의 정복왕이었던 아미르 티무르가 한 말이 아직도 많이 회자된다.

▶ 아미르 티무르왕의 동상. 말을 탄 정복왕의 모습이다. 타쉬겐트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될 뻔했던 비비하님 모스크이야기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위대한 정복왕이었던 아미르 티무르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비비하님이다. 왕은 이 아름다운 아내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꼈다는데 왕은 항상 궁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다. 왕은 혼자 지내는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모스크를 짓기로 한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가를 불러와 호화로운 재료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런데 잘 나가던 건축 과정에 돌발상황이 터졌다. 어느 날 이 모스크 건축을 보러 왔던 아름다운 비비하님을 본 건축가는 그만 짝사랑에 빠져 버렸다. 이후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비비하님의 모습만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왕이 돌아올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자기 이름을 딴 아름다운 모스크의 진척이 없어 비비하님의 애가 타 들어간다. 어떻게든 건축가의 능력을 건축에 쏟게 하려고 건축가를 구슬려보아도 건축가는 오직 비비하님을 향한 사랑 밖에는 안중에도 없다.

▶ 비비하님 모스크 15세기 사마르칸트. 아름다운 비비하님을 위해 그 당시 최고의 역량을 모아서 짓던 아름다운 모스크였지만 이후 쇠락했다.

어느 날 비비하님은 건축가에게 삶은 달걀을 두 개 보낸다. 하나는 겉 껍질이 하얀 달걀, 또 하나는 겉 껍질이 누런 색의 달걀이었다고 한다. 건축가는 처음 이 선물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끙끙대던 건축가는 갑자기 무릎을 친다. 비비하님의 수수께끼 같은 선물의 뜻을 불현듯 이해하게 된 것이다. 비비하님의 뜻은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다. 달걀의 겉껍질이 달라도 먹어보니 똑같지 않던가? 그러니 나한테 오매불망 매달리지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라.....'

이런 뜻을 이해한 건축가는 비비하님에게 답을 보내게 된다.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의 병 두 개에 하나는 물을 담고 또 다른 병에는 색이 없는 술을 넣어서 보냈다고 한다. 똑같아 보이지만 먹어보니 다릅니다.....

밀고 당기던 비비하님과 건축가는 결국 담판을 하게 된다. 건축가는 비비하님에게 "딱 한 번의 키스를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마음을 돌리고 건축에 매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비비하님도 '딱 한 번의 키스 정도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약속하게 되었단다.

결국 비비하님과 건축가는 한 번의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 키스가 어찌나 격렬했는지 비비하님의 입술이 퉁퉁 붓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뿔싸, 아미르 티무르왕이 인도 원정에서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온 왕이 비비하님의 부은 입술을 보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결국 비비하님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 건축가는 낌새를 채고 멀리 멀리 도망갔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가장 아름다웠던 미완성 비비하님 모스크는 버려진 채로 있었다. 혹시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선가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흉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전설의 요지이다.

▲ 비비하님 모스크 앞의 커다란 코란을 펼치기 위한 석조 책상

▲ 비비하님 모스크의 내부. 흉가 같고 천정에서 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은 훨씬 전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정복왕 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주인공이다.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총애하는 캄파스페라는 이름의 애인이 있었다. 항상 곁에 두고 싶었지만 왕은 전쟁터에서 나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위험한 전쟁터에 캄파스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 대신 캄파스페의 초상화를 지니고 다닐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인 아펠레스를 부른다. 아펠레스에게 주어진 임무는 캄파스페의 아름다운 나신을 그리는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원했던 것은 그냥 초상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캄파스페의 누드였다. 주저하는 캄파스페에게 화가 앞에서 옷을 벗게 한 알렉산더.....

▲ Giovanni Battista Tiepolo: Alexander the Great and Campaspe in the Studio of Apelles 1740 Paul Getty Museum. 이 그림에서 알렉산더와 캄파스페의 다정한 교감은 보이지 않는다. 상반신을 벗은 캄파스페의 표정이 뾰로통해 보인다.

▲ Francesco Trevisani: Apelles Painting Campaspe 1720 Norton Simon Museum Pasadena

여러 날이 지난 후 알렉산더는 캄파스페의 초상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서 화실을 불쑥 찾아가게 된다. 문을 연 알렉산더는 눈 앞에서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화가 아펠레스와 캄파스페가 부둥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렉산더의 눈에 시퍼런 불꽃이 튀는 순간. 아펠레스와 캄파스페는 얼어 붙었다. 이제 저 둘은 죽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알렉산더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다가왔다. 그 다음 장면은 가히 놀랍다. 한 손으로는 아펠레스를 또 다른 손으로는 캄파스페를 잡아서 가까이 해주면서 저 둘을 축복해주었다. 너희 둘이 사랑한다니 너희들을 축복해주겠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이다.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범하고 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예로 많이 이야기된다. 비비하님의 이야기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알렉산더가 대범하고 쿨한 사람이라면 티무르왕은 속좁은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럴까?

티무르왕에게 비비하님은 어떤 존재이었을까? 아마도 '대체불가'한 존재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비하님의 퉁퉁 부은 입술을 본 왕은 우선 배신감에 치를 떨고, 곧이어 상실감에 좌절했다. 나아가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히 카오스 상태에 빠졌음에 틀림없다. 반면 알렉산더에게 캄페스페는 '대체가능'한 존재 아니었을까? 이 빠진 그릇은 버리고 다시 사면 된다는 생각은 아닐까?

그건 그렇고…… '껍질의 색이 달라도 먹으면 똑같다' 라는 비비하님의 말은 꼭 육체적인 사랑을 빗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에 반해 물과 술의 비유는 좀 정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흔히 남자는 '짐승'이라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면이 좀 더 크고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면이 더 크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여행자에게는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여자인 비비하님이 육체적 사랑을 말하고 남자인 건축가가 정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캄페스페는 왜 아펠레스에게 빠졌을까? 세계 최고의 영웅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말이다. 너무 잘난 남자, 세상을 주무르는 남자 보다는 신분은 훨씬 낮지만 다정다감하고 예술적 감성이 있는 남자한테 끌렸을까? 알렉산더가 캄페스페에게 화가 아펠레스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을 때 캄페스페는 아마도 심한 수치감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 Auguste Ottin: Alexander의 명령에 따라 Apelles 앞에서 옷을 벗는 Campaspe 1883 루브르 박물관 파리. 애인이자 왕인 알렉산더의 명령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캄파스페의 표정이 좋지가 않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Ottin의 '알렉산더의 명령에 의해 아펠레스 앞에서 옷을 벗는 캄파스페'를 보면 캄파스페의 표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테에플로의 그림 속 캄파스페와 알렉산더의 표정은 그다지 애틋해 보이지 않고 캄페스페는 좀 뾰로통해 보인다. 남녀간의 일은 둘 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 Gaetano Gandolfi: Alexander Presenting Campaspe to Apelles 1793. 흠집이 난 그릇은 남에게 주어 버리는 알렉산더

6월, 7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진료부

가정의학과 강옥림 강창랑 고윤미 김상혁 김수아 김열자 김재호 김정순 김하진 김호준 남명우 민성준 박혜아 박훈기 신은영 오형석 우의정 유효시 윤경애 이석영 이호범 장영진 전한조 조재연 한실비 홍두루미 홍성휘
천안 서윤석 염형택 이철호 임형택 장호선

내과 강유민 강창랑 고현길 김경묵 김상훈 김승정 김은선 김태형 백도명 소수웅 왕준광 윤지영이강원 이성곤 이수진 이재동 이한아 이호영 이희석 임수빈 임지환 임형선 정유승 조성철조성태 차란희
동두천 강민우 강민정 맹일호 손형은 윤동환 이수진 정상빈
삼척 권혁준 김차덕 임선영
천안 류성혁 박경식 박상은 용호진 장호선 허 준

당뇨클리닉 김상혁 민경완

마취통증의학과 김현정 박윤형 조성민 최우종
삼척 지슬기

비뇨의학과 김 명 김환익 김희승 남지나 서준교 이영주 이정우 임지은

산부인과 김리나 김성훈 김소희 김은성 김현영 이동윤 이미영 이예지 이택상 임현지 주세경 주창우최 진 한경희
삼척 송재윤 정의식

소아청소년과 삼척 유 영
천안 서윤석

신경과 김예림 김종필 박기홍 신제영 홍윤호

신경외과 고영초 김명수 박성배 오지현 이채혁 조성민 최찬영 한성록

심장클리닉 임준성 홍석근

안과 김미정 도상희 박채린 이수정 정호경 최진석 최혜선
삼척 원종상

영상의학과 강정임 김수연 신승의 윤순호 장정민 조현자 이수현 최승홍

외과 김영석 김영아 노민수 윤익진 이은숙 이호석 장혜경 최용관
천안 김성태 김종현

이비인후과 김성희 서인석 신동봉 이강수 한창준
삼척 김성현 김성희 김호찬 박호정

재활의학과 강성민 고주영 김선형 김인희 서경천 신대엽 윤수훈 윤재현 이반형
삼척 노준수 신세영

정신건강의학과 송유진 안예빈 채수현 최대인

정형외과 박건우 송금영 이경학 이승희 정회숙 조범철
천안 권 희 김성태 김종필
삼척 문종렬

치과 강민구 강정민 강현규 강현숙 곽난희 김만진 김선아 김선희 김성조 김성준 김세진 김은기 김한별 김한석 김훈재 문상운 박명섭 박성희 박재홍 백지연 손준성 안교진 유태준 유호정 이기정 이병화 이성영 이승우 이영은 이지예 이진경 이현미 이현후 전성우 진소정 최광수 최한울 하수용 홍준희
동두천 곽기재 김대용 박성욱 서민성 이광섭 임미애 임한기 차재원
삼척 김동욱 이동환 이언화 최연조
천안 권성미 김기환 박미정 신동훈 신준희 원상연 원상태 유용묵 윤선웅 이규태 이성국 이정식 이현정 최용석 홍기석

피부과 김민수 김지원 노기영 유다애 이상훈 지민선 허보윤
삼척 김대연 김한나

한의과 동두천 권현미 김린애 김민정 김상현 김용성 김태희 황성민
삼척 민백기

흉부외과 삼척 김창희 이성호

간호사 강인화 강현숙 고성희 고정희 고희연 권순주 권종선 김미정 김민정 김순애 김현진 나경미박경애 박미숙 박순화 박은주 박현숙 박희순 배선하 서유나 서유빈 성정희 소리나 송다연송미라 신영미 신주아 양영실 오선주 원혜경 윤희옥 이보라 이수미 이영희 이현경 임경민장선미 전예진 정미순 정유경 정유민 정유선 조영순 채혜정 최민서 표옥경 홍은자
동두천 송순의 송한순 유대순 주선경
삼척 김경미 김귀자 김민옥 김보미 김유미 김윤순 김진숙 장은진
천안 강혜숙 김미현 류주연 박정화 염혜영 이미래 이병은 이은경 이은희 조미현 진혜경

물리치료사 동두천 남연주 김창인 장영욱 조아라 최문석

임상병리사 엄미선 박수현 시차자 임민규

치위생사 김 솔 김 솔 김은경 민경은 안금선 이소영 이소정 이지은 정유미 조영옥
동두천 김광현 조은주
천안 권순주 권성미 김예빈 김황순 박미정 박소라 박은영 심예섭 이정식 이지혜 이진민 이현정 임정희 전유정 최예지 홍인애

약사 김경자 김다원 김양민 김현숙 박순연 박효숙 손윤아 심명희 심희진 이명락 장은숙 정혜원조현무 차희수 최혜경 함경화 홍성민
동두천 김부권 김준수 박지혜 이신옥 이정옥 조은진
삼척 김보영 김진여 김학철 안시용 정지원
천안 김지혜 유소연 조현옥 최소영 황동숙
숙대약대개국동문 김성숙 김부현 양근해 이영희 장은숙 정혜원 차희수 최현주 최혜경

코디네이터 백심성 김희정 오선주 장혜숙 채혜정 최민서

진행부

총괄 고재성 김 전 김창덕 안규리

실행위원 권순억 김호철 윤현기 이호영 이희석 정회숙 팽진철 황찬호
천안 강동희 김기환 서윤석 이길호 임남규 장호선

의과대학 · 간호대학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어사랑' 김가연 강민지 김성경 김성령 김 솔 김수정 박연재 박지연 배은별 성유빈 윤재영 이수정 이시영 이재희 이주원 이지영 이희윤 임승연 임희정 정아연 조혜민 주지원 최민지 최예진 최지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감사' 김민수 강지인 김민우 김민준 김상범 김세진 김수연 김예훈 김유리 김윤섭 김창신 김혜인 김희오 류예찬 박선주 박수현 박시준 박지인 백서영 서재윤 안소현 안수경 안형준 양재경 위바울 이복원 이수경 이현동 임건우 임지원 정상규 조선영 조수현 조원경 조은솔 주현아 최수련 함승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카당' 강현우 강기웅 김선용 김선욱 김수영 김영완 김유강 김일규 김하윤 김현탁 노상은 박소미 배소현 서동한 성민영 송세진 송수빈 신예림 신원식 신지원 오병찬 오은빈 원규연 유귀현 유동욱 윤서정 이명수 이인혁 이주현 이진택 임지은 정재훈 정현지 정희재 조성현 최관영 최 윤 한정훈 한지윤 함승현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강신영 고석한 권현주 권혜란 김수정 김애진 김진경 김현지 문나현 박혜빈 박혜원 석민희 석혜원 신예린 심규민 심한샘 우희진 윤현지 이수지 이승은 이재연 이재희 이지민 이혜림 이혜지 임세빈 장소연 정민경 최윤희 한서영 한예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카사' 권준영 고희원 권혁찬 김기훈 김명준 김미송 김민선 김민지 김부영 김상돈 김성래 김수지 김윤아 김장우 김지훈 김진우 김태엽 김홍현 노원준 도현석 도현식 문현두 박대로 박세은 박수민 박유진 박은비 박인선 박제연 박하민 박해민 방의철 서원영 안소희 육유정 윤다빈 윤영성 이규민 이상엽 이영주 이윤재 이은교 이제욱 이주현 이지형 임채원 전승연 정나은 정동재 정성현 정연주 정원주 정지호 정지훈 정진서 조희원 최연성 최지은 하윤식 한승엽 함지영 허 강 허 강 황윤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카사' 권나은 구남훈 권창범 김민수 김민주 김성수 김에지 김예지 김인수 김태경 박윤호 박정은 박정호 서혜린 송창열 신민정 신현지 심민정 양윤정 원성준 이나은 이동호 이석우 이성우 이지윤 이찬일 이효정 이희수 임서영 임소아 전창범 전현석 전희승 정세용 차채령 최희선 한지숙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박채연 김재연 박혜린 송지은 신지우 오서희 이민정 이소미 이소희 이수미 이수빈 이 진 정아현 정은찬 정진아 조민석 조세희 최정원 허유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욱 김동규 김세율 김은정 김지민 김현종 김희연 반지윤 백지원 손현수 윤혜준 이상민 이제형 이지우 이호준 전소윤 정연우 정인찬 조경준 조희천 주병현 최한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하예모' 강현지 강현선 김민경 김선빈 김소형 김예찬 김윤지 김정아 김현지 남궁민 남우연 노현서 문영신 박소정 박주연 성지윤 송지현 원희연 윤선영 이가을 이동희 이상영 이성민 이은경 이은지 이주연 이주영 이혜지 장민지 장한나 전아름 조해은 주은정 채지우 최연주 최윤서 최지은 현승연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범태균 배승은 최가은

동두천 남서울대 간호학과 강신영 곽나현 김규원 김미경 김예진 문나현 박혜원 배하늘 서유라 오하영 윤현지 이승은 장소연 최현아

동두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재우 이은호 이정민

천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겨자씨' 김기홍 구지원 김윤아 김혜린 배병훈 신동건 염규진 윤준서 이아현 이유주 이주영 이효영 정재헌 한수지 황샤론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김미현 강승연 김민지 김예지 박상은 신은정 이예진 이지수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박연경 강성임 서소영 이수민 정선이 조재민 최예지

치위생학과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하이진' 김서영 강유나 김세원 김수지 김유나 김지현 박혜준 서희림 손다은 신예은 윤수영 윤이빈 윤하영 이다은 이수연 이신영 전수현 전은지 조유진 최수빈 최유빈 최지희 홍정화 홍희수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덴티사랑' 김여경 서희림 임세중 장동욱 최수빈 최유나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SDEC' 신정민 오혜은 윤현지 전민지 정인경 최가영 최경현 최희재 한수빈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GOCC' 최수경 최연화 표선화

동두천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덴티사랑' 강민지 권은정 김세원 송하나 유승희 이유빈 정민주 정은지

천안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구민지 김윤희 박소라 박연경 백수연 손예진 이소현 정민주 최소영 최예지 홍인애

약학대학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쿠팜' 김건우 구태희 박소연 박정우 박지현 서지원 이경진 이예찬 이현영 정다영 채희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경약' 김민경 김대연 김민정 김수연 김예린 김지원 김채린 김현수 남정일 박경민 박상욱 박수연 박수지 배소현 송승한 신재석 심희만 안수현 안승찬 양요셉 오세은 오진솔 원혁재 유소운 윤예진 이동헌 이선민 이수빈 이승주 이하림 이혜린 장다슬 장윤후 장희선 조영제 차하림 채희지 최재호 한수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라봉' 안정현 오로지 이새용 이지윤 인지원 최우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무궁화 로타랙트' 김지수 문영신 백유경 염예솔 이소영 이지연 임수경 임주원 최서아 최연성 한상우 한선정

약학대학교 연합동아리 '커뮤너스' 오승연 유현주 이유진 전혜수 정다연 최운호

천안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다애 류지현

삼척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쿠팜' 김재민 성종혁 서지원 김예주

일반봉사자

강다현 강민창 강보현 강은주 강주원 강중현 강호재 고성희 공민우 권나은 권수진 김가연 김건우 김규림 김규민 김규빈 김근호 김남중 김다미 김다현 김도겸 김동완 김두연 김락준 김래동 김매화 김미경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서은 김서현 김성숙 김성원 김성은 김세민 김세준 김수민 김수영 김수용 김순옥 김승준 김시현 김영서 김영은 김예준 김예지 김우재 김원목 김원정 김유진 김윤서 김이량 김이주 김재동 김재영 김정이 김정하 김정후 김준호 김중헌 김지희 김진경 김진일 김태균 김하련 김한수 김현익 김현준 김혜자 나상헌 남기홍 남선주 남윤혜 노연우 노완석 도윤재 맹승현 문서윤 문영주 박경민 박명진 박민준 박상천 박서영 박선우 박세란 박세현 박소연 박수연 박아린 박정규 박정빈 박정안 박종호 박지영 박찬영 박혜민 방정현 배민국 배승은 배윤우 배진훈 백미숙 서원재 서유락 서지우 서진호 서효진 성지후 손석교 손영광 송상우 송정원 송지환 신경옥 신세인 신지우 신지은 어유나 엄지윤 에르덴바야르 에르드네 오경준 오경택 오기석 오민혁 오상환 오서희 오성수 오유진 오지영 원연수 원유석 원태연 원혜경 유성민 윤미강 윤선영 윤성자 윤아영 윤혜승 윤혜정 윤희옥 윤희원 이강민 이도영 이동균 이민경 이민석 이민숙 이민제 이병순 이선우 이설휘 이성록 이성준 이소망 이수윤 이수현 이수희 이승현 이승환 이시헌 이유리 이윤재 이재광 이재웅 이정헌 이주현 이준 이준석 이준한 이지로 이진형 이창민 이창학 이태로 이현경 이효은 임경민 임보현 임세중 임정욱 임종석 임준경 임현재 장연정 장준영 쟈클린 전성빈 전이주 전혜수 정동윤 정영지 정우채 정유나 정은지 정정헌 정정훈 정진목 정한나 정해윤 조민서 조민석 조성원 조아현 조유상 조윤영 조이현 조재호 조주현 주현서 주혜린 채주안 채혜경 최가은 최아인 최윤서 최윤영 최재현 최정우 최지영 최 혁 최혁준 최현운 카를로스 팽지원 하조현 한범석 한상욱 한상유 한세현 한승민 한정오 한지윤 한현종 함승아 홍소영 홍승완 홍윤태 황덕규 황수정 황연웅 황혜령 Erlita plata
동두천 김강식 기태연 김민철 김보민 김유환 나형삼 남동현 노유진 문형주 박성희 박영서 박재열 사 진 신정민 이세림 이인식 임미옥 조성대 최은영 한사용 한송희 홍수연 홍순식 황성환
삼척 이건상 포스코건설
천안 강동규 강수림 김효민 김효은 문재화 신웅섭 윤이선 이서영 이서현 이재영 천안모이세

통역 천안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김희진 김수진 박민정 서수원 이슬아 이예진 정민주 정시현 최성아

나눔터 분당소망교회

법률 상담 이주민센터친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사무국 봉사 곽순진 권정희 신정균 이경정 최복섭

한글 교육 가톨릭초등학교교사회

환경 대치동성당레지오팀 대치2동성당레지오팀 문정2동성당레지오팀 서울대학교병원환경팀 성북동성당레지오팀 코람코자산신탁환경팀 푸르네정원문화센터 한영회계법인환경팀

사진촬영 따사모(따뜻한 사진활동가 모임) 미소드림

미사집전 권혁준 나승구 박정우 정태영

전체 진행 김현지 문영주 서유락 안형준 이주현 장혜숙 한지윤

2019년 6월 ~ 2019년 7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클리닉

강금례 강봉자 강애란 강윤미 강정희 강홍수 강효경 강희경 강희복 고민관 고선경 고재성 곽순진 권성연 권승화 권오기 권정희 권준수 금신자 김경길 김경업 김경회 김광두 김광범 김귀자 김기정 김기환 김나영 김담희 김대욱 김동률 김두례 김 란 김명석 김명숙 김무겸 김미선 김미승 김미향 김민아 김민정 김병석 김상정 김선덕 김성미 김수암 김수진 김연동 김영국 김영미 김영숙 김영순 김영재 김영주 김영희 김왕율 김용운 김용호 김욱성 김원희 김유경 김유숙 김윤중 김은경 김의태 김인혜 김재희 김 전 김정자 김정희 김주영 김주현 김중곤 김지엽 김진순 김창경 김태민 김파라 김학성 김해주 김현철 김혜자 김호철 김홍빈 김희동 김희수 김희정 김희중 나명훈 나상호 나승구 남상효 남숙이 노진희 단필권 마대중 마송희 문덕자 문미희 문석란 문수정 문영주 문종렬 민경완 박건우 박경수 박기호 박대연 박명희 박문규 박미애 박미영 박상규 박선영 박소연 박소정 박수현 박영배 박용현 박용화 박유호 박유희 박은선 박재홍 박점숙 박주영 박지영 박지호 박찬익 박찬일 박태균 박해심 박향화 박화숙 박희규 방활란 방효선 배성민 배재문 백가은 백성호 백인하 백재승 변유란 변정익 사공석진 서영주 설영기 성낙영 손대원 손말희 손정희 손해정 손혜경 송순자 송여주 송은숙 송재성 송저영 송진욱 신동옥 신동학 신미희 신민정 신영실 신인철 신정균 신탁식 심영수 안미혜 안석원 안중철 안치석 양계정 양영실 양윤희 양재혁 엄애리 엄영근 엄익부 염기철 염우섭 오명주 오범조 오세란 오세열 오세준 오정성 오정택 오준영 오지영 오지원 오지현 오혜숙 왕해숙 원종태 위봉애 유경동 유경촌 유병란 유승주 유재호 유혜경 윤규옥 윤문자 윤미순 윤병우 윤의영 윤장수 윤정묵 윤혜리 이경정 이공필 이기연 이민경 이민혁 이병순 이부영 이상백 이선민 이선주 이성근 이소영 이수정 이숙희 이승연 이 영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예성 이오례 이용학 이용희 이원평 이유경 이은숙 이은옥 이인재 이재광 이재용 이재희 이정완 이주식 이지안 이지오 이지원 이진석 이태림 이헌석 이현주 이혜승 이홍성 이희우 임수현 임태환 장기현 장수홍 장승아 장윤석 장인진 장정인 장현아 전병준 전상우 전석구 전윤희 전정희 정석모 정선우 정순은 정순희 정영숙 정영진 정옥희 정재식 정정례 정정희 정태윤 정해남 정현규 정혜경 정희경 정희선 조광희 조문준 조상헌 조수헌 조아현 조이현 조정례 조해숙 조혜경 조혜숙 주미숙 주선경 주효미 진순영 진양옥 최금순 최복섭 최선경 최선자 최영희 최 용 최윤라 최인호 최자영 최정연 최정욱 최 황 추연명 추조자 한경아 한민규 한연주 한정희 한지선 함덕영 함 숙 허비아 현은영 홍강의 홍경란 홍명숙 홍미섭 홍석란 홍순희 홍인식 홍주의 홍진경 홍혜련 황규관 황석근 황세영 황순애 황영순 황윤주 황자영 황현숙 1004 익 명

단체후원
(주)천지산업 (주)피제이전자 OCI주식회사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네이버 해피빈 담우물산 부페아리스 분당소망교회 삼진제약 한영회계법인 휴먼영상의학과의원

개인약품후원
김현철

단체약품후원
(주)유한양행 노보노디스크제약(주) 동광제약주식회사 롯데복지재단 삼청당제약_바보의나눔 삼진제약 일동제약(주)

물품후원(의료기기)
(주)피오씨코리아 비엔엘바이오테크(주)

지정후원
(재)라이나전성기재단 (재)유한재단 (주)하나은행 김남호복지재단 남서울로타리클럽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부산신항만(주)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재단법인 포스코1퍼센트 나눔재단 주식회사면사랑 중앙동성당(라파엘나눔) 코람코자산신탁 포스파워주식회사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라파엘 인터내셔널

강남구 강미령 강민진 강승우 강옥선 강윤하 강임주 강정남 강지원 고광택 고명순 고영초 고지연 곽인진 권도선 권임희 권혜철 김경덕 김경숙 김공경 김규복 김기정 김길원 김길자 김돈규 김명기 김명열 김명희 김문재 김문회 김미금 김미애 김민정 김병규 김봉애 김상호 김선미 김선주 김성봉 김성용 김성우 김성정 김세경 김소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화 김순녀 김순님 김순심 김순옥 김연정 김영석 김영순 김영술 김영재 김용준 김우현 김웅한 김유련 김유정 김은주 김인순 김재석 김재우 김 전 김정문 김정미 김정아 김정애 김정원 김정준 김정환 김종욱 김종철 김종현 김준진 김지양 김지현 김지희 김진자 김진철 김춘석 김칠선 김현기 김현숙 김현진 김호준 김화경 김효신 김흥년 김희숙 남기미 남점우 노무종 노정우 노준화 노태술 노희양 도희철 라소영 류영선 명현식 문복순 민도연 민찬근 박건태 박금보래 박기연 박대열 박래연 박명숙 박미선 박미숙 박복순 박성희 박세근 박소원 박영인 박영자 박영하 박영화 박영희 박옥희 박장호 박정자 박정희 박준오 박해인 박향숙 박현숙 박훈영 방기태 방승웅 방효준 배성희 백수현 백승모 백운철 백해경 변승혜 변윤희 서동익 서승민 서음옥 서정훈 설진선 설진우 손송이 손환철 송영숙 송정희 송준석 송지원 송현숙 신건호 신노미 신승원 신운건 신 철 심재임 심혜정 안규리 안규백 안봉순 안성용 안성훈 안소은 안재기 안재형 안종욱 안종원 안종진 양승희 양원보 엄주영 여상민 오광숙 오국환 오문성 오상호 오영진 오종렬 오혁진 오혜경 우연호 원용금 유기임 유동연 유석현 유인화 유재흥 유진오 윤두희 윤병재 윤상경 윤영옥 윤이경 윤정호 윤찬송 이경란 이경진 이규연 이대희 이도행 이명준 이문교 이미애 이민정 이병건 이성란 이성민 이순임 이승연 이연희 이영순 이영식 이영일 이옥경 이원제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응훈 이인숙 이일숙 이재룡 이재섭 이재인 이재현 이재호 이정미 이정은 이정자 이정희 이지은 이진경 이진서 이태수 이택하 이하정 이현심 이현종 이흥식 임미정 임보현 임부열 임승옥 임의정 임재천 임정근 임채균 임천규 장보일 장형욱 전가은 전동원 전란혜 전세은 전수정 전종관 전준수 전화자 정구숙 정규탁 정도교 정도현 정명관 정미경 정봉태 정산헌 정성진 정우경 정유빈 정의석 정인규 정장환 정재은 정지태 정진택 정해탁 정혜경 조경재 조남문 조대상 조영희 조정숙 조한범 조현예 주덕례 주윤정 차영은 차창일 차혜정 채승병 천지영 최건주 최공선 최두성 최복현 최순옥 최순철 최영아 최은옥 최인범 최재경 최진이 최형선 최혜수 하정은 하희옥 한명은 한미옥 한승환 한재일 함방자 허석훈 허연호 홍경애 홍영태 홍윤희 홍혜진 황민주 황보현우 황선문 황주연 황지영 황지희

단체후원
(주)아웃도어파크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주)유라통상 광명산업(주) 사랑의후원금 씨에스우드(주)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케녹스사운드 해피빈 기부금

지정후원
(재)라파엘나눔 공동모금회_권오준 공동모금회_포스코 바보의나눔_이피코리아 코이카_한국국제협력단
구백서 김상희 김양수 김인숙 김창회 문종렬 박정원 박호정 선우태원 성낙현 송세진 이민경 장호선 장호선 정유미 최 준

약품후원
(주)유한양행 (주)한국팜비오 (주)한림MS 건일제약(주) 대원제약(주) 대화제약(주) 새서울메디칼 샤인덴탈 인천중부점 씨제이 헬스케어(주) 알보젠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이프로젠파마(주) 정문약국 제이더블유신약(주) 주식회사 케이엠에스원 코오롱제약(주) 하나제약(주) 한미약품(주)

라파엘나눔

강 훈 강건욱 강경임 강기석 강남순 강민수 강민정 강부성 강영배 강요한 강은주 강인숙 강지수 강한나 강화자 강효정 경희호 고 훈 고경민 고명찬 고민수 고소현 고원준 고준용 고춘영 고희순 공문선 공성혜 공인숙 공희진 곽수진 곽영자 곽영호 곽용진 곽재복 곽주연 곽진영 구서희 구자정 권병준 권선진 권송택 권승호 권재훈 권준범 권준이 권지형 권형주 기현지 김 전 김 준 김가연 김경남 김경미 김경민 김경삼 김경숙 김경인 김경자 김경화 김광무 김구희 김귀숙 김규림 김규빈 김근호 김기남 김기정 김기풍 김나나 김나은 김낙현 김남미 김남웅 김남호 김다민 김대순 김대용 김덕희 김도원 김동균 김동순 김동연 김동엽 김동중 김명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옥 김명웅 김명자 김미정 김민순 김민우 김민정 김민지 김범석 김범수 김병천 김보경 김봉길 김상미 김상범 김상수 김상윤 김상철 김상희 김서현 김석봉 김석정 김선경 김선미 김선영 김선희 김성민 김성수 김성현 김성환 김세웅 김세진 김소정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주 김수지 김수진 김순녀 김순옥 김승철 김양현 김연수 김영기 김영남 김영수 김영아 김영자 김영재 김영훈 김영희 김예준 김옥수 김완수 김요한 김용건 김용경 김용수 김원호 김유림 김유영 김유정 김유진 김유환 김윤동 김윤상 김윤서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옥 김은정 김은희 김을수 김인선 김자경 김자은 김장성 김재하 김재현 김정곤 김정림 김정미 김정연 김정우 김정일 김정자 김정제 김정호 김종엽 김종원 김종진 김종필 김종호 김주영 김주희 김준민 김준호 김지영 김지하 김지현 김지호 김지홍 김지희 김진구 김진수 김진숙 김진순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창목 김채영 김청덕 김추양 김태열 김태옥 김태현 김태형 김태희 김필성 김하석 김학준 김한성 김한수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화 김형구 김형국 김형수 김형준 김형하 김혜경 김혜리 김혜선 김혜연 김호정 김홍자 김화자 김화정 나동규 나유미 나종옥 남계영 남맹동 남상범 남숙희 남영우 남윤자 남인옥 노경태 노민수 노영자 노유진 노정숙 노주환 노준수 노진영 도시현 라성은 류국영 류수영 류은주 맹승현 모희정 문경원 문상원 문선진 문승자 문지환 문현일 민경율 박경봉 박경빈 박경심 박경자 박경희 박귀애 박금보래 박만섭 박명규 박명순 박미경 박민지 박민혜 박상섭 박상진 박서영 박선옥 박선우 박선은 박성준 박세근 박소연 박수연 박수열 박수준 박숙녀 박순연 박순영 박순희 박시형 박신안 박아랑 박영규 박영기 박영수 박영식 박영주 박영준 박영환 박영희 박옥희 박외숙 박용식 박우곤 박우준 박웅양 박윤주 박은경 박은희 박장환 박점례 박정미 박정민 박정안 박정우 박정의 박정임 박정희 박종식 박종택 박종환 박종훈 박준범 박준형 박중구 박지영 박찬익 박창배 박채린 박태섭 박해경 박해주 박행자 박현숙 박형은 박혜경 반효정 방경숙 방서인 방영미 방영식 방유진 방준혁 방혜란 배민지 배상미 배정현 배해경 백문영 백미숙 백미영 백성현 백숙현 백심성 백은영 백은옥 백종옥 백진호 백효정 변성연 변옥순 부종욱 사공정숙 서경산 서기원 서대헌 서동진 서범석 서수길 서은영 서자경 서재일 서전영 서진옥 서진활 서창호 서혜명 서호경 석정순 선효숙 설수경 성경숙 성기택 성기훈 성숙환 성제경 성철제 소영섭 손 희 손금임 손매자 손병두 손성세 손은정 손정륜 손정수 송경희 송민종 송상우 송석길 송영욱 송영주 송정섭 송지연 신덕순 신동미 신동원 신명원 신선희 신소라 신윤섭 신은영 신재연 신정경 신정옥 신주아 신지영 신진숙 신창규 신혜미 신혜숙 심정연 심희진 안규리 안미규 안성자 안성준 안순길 안영복 안원모 안유미 안재덕 안정원 안현배 안호선 안홍율 양 영 양병국 양승원 양영모 양영이 양영현 양태종 양희동 양희수 엄기준 엄소현 엄지윤 여수진 여의주 여인열 염정인 오경택 오규석 오덕자 오명균 오명희 오문주 오서희 오성자 오수경 오순영 오원희 오정례 오혜원 오희숙 우제명 원영수 원재학 위민이 위순희 위지범 유귀임 유달라 유병숙 유병욱 유성자 유영주 유유희 유은아 유은희 유재현 유정광 유지순 유지형 유창우 유혜련 유효선 유희숙 윤광준 윤미선 윤미희 윤선희 윤성노 윤성자 윤소영 윤영주 윤용현 윤은옥 윤의진 윤이경 윤인숙 윤인자 윤재희 윤종식 윤주빈 윤태로 윤현배 윤혜진 윤희옥 윤희원 은진영 이 란 이 옥 이 찬 이경민 이경숙 이경영 이경주 이경희 이계선 이광호 이규상 이규희 이기남 이기원 이기혁 이남요 이남준 이남현 이누리 이달봉 이달원 이대우 이동진 이동한 이명란 이명숙 이명옥 이미라 이미자 이미희 이민경 이민우 이민재 이병호 이부순 이상남 이상미 이상민 이상은 이석래 이선재 이선희 이성배 이성숙 이성이 이소영 이수련 이수은 이수자 이승빈 이승철 이승학 이승현 이아름 이연옥 이연출 이영순 이영식 이영애 이영은 이영인 이영일 이영희 이옥준 이용미 이용석 이원경 이원표 이유미 이윤지 이윤진 이윤희 이은경 이은빈 이은지 이은진 이은하 이은희 이인자 이장원 이재선 이재원 이재진 이재희 이정민 이정아 이정윤 이정은 이정철 이정헌 이정희 이제현 이종근 이종림 이종만 이종민 이종철 이종현 이종화 이주영 이준한 이준행 이지민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태 이찬휘 이찬희 이창우 이창학 이철재 이충식 이태경 이태규 이태식 이한규 이한신 이해인 이향숙 이현국 이현숙 이현심 이현재 이형전 이혜경 이혜옥 이호열 이호영 이호준 이화자 이효정 이희석 임동우 임명규 임봉선 임연희 임원명 임인숙 임재우 임정선 임정욱 임준경 임진웅 임진화 임한규 임혜규 임혜원 장경복 장경진 장문수 장병화 장비호 장수영 장영우 장옥주 장윤재 장재욱 장정민 장정혜 장현민 장혜숙 전경선 전미경 전병선 전승호 전양미 전은주 전춘이 전혜정 전희중 정 남 정규현 정달근 정상식 정상화 정선민 정세빈 정순균 정승이 정아현 정양선 정연수 정연호 정영근 정영자 정영희 정왕진 정우경 정우영 정원제 정은지 정재경 정재상 정정희 정제설 정준호 정지원 정지은 정진목 정혜경 정혜영 정희영 정희주 정희창 조 석 조 선 조덕관 조미진 조민우 조민주 조범철 조부귀 조서현 조성범 조성연 조성채 조수영 조순례 조숭희 조승희 조영숙 조영순 조윤서 조윤성 조은지 조재영 조재호 조주연 조준철 조춘식 조춘제 종민정 주동우 주성원 주세운 주재범 주재원 지완일 지정임 지정훈 진영옥 진영진 진혜영 차상민 차서우 채영규 채윤서 채창규 천정은 최 인 최내리 최동일 최명윤 최미경 최미정 최범규 최병선 최서연 최선애 최수미 최수안 최수연 최숙자 최아인 최연옥 최영자 최영화 최영희 최용민 최원남 최원의 최원호 최윤서 최윤영 최윤욱 최윤진 최은영 최인희 최재원 최정규 최정은 최지영 최지훈 최창환 최치영 최하석 최형인 최희자 추성옥 추호정 하태훈 하희자 한경욱 한경희 한만오 한민정 한사용 한상규 한상욱 한세현 한승우 한영숙 한영주 한영춘 한유경 한은경 한종수 한종표 한태규 한현욱 함경화 허 옥 허 진 허 훈 허광래 허석훈 허성오 현선희 현해균 홍경자 홍기순 홍성민 홍성혜 홍성화 홍순경 홍승노 홍영의 홍옥표 홍윤태 홍장희 홍재모 홍지만 홍창기 황경하 황등영 황명하 황보명 황성숙 황순정 황승용 황연숙 황응수 황인규 황재숙 황지현 황지혜 황태숙 황환민 황희경 마셀 슈미트 KIMMINHAMINA PIAO ZHENJI ZACHARY M HAHN

단체후원
(주)국민은행 중부지역영업그룹 (주)두리디자인 (주)보명엔터 (주)삼명테크 (주)제이영에셋 (주)하트스캔 (주)한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려아연(주) 동아화성(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코러스 삼척사무소 삼남석유(주) 선부한빛의원 세진화성(주) 인사이트메디컬(주) 정언내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갈현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압구정1동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창4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창5동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남동성당 한국쿄와하코기린 해방촌성당 빈첸시오회 현대기전(주)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라파엘나눔 사무국(02-744-75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파엘나눔재단
Raphael Nanum Foundation

제5회 몽골 · 미얀마 · 네팔 의료지원을 위한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

2019.10.12. 토

11:00~17:00 라파엘센터

후원계좌 신한 100-031-742996 (재)라파엘나눔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참여안내

바자티켓 02-744-7595 사전신청 또는 현장판매 (1매 10,000원)

기증품 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43길 7 라파엘센터
* 중고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수익금은

몽골
1. 현지교육세미나
2.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3.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4. 라파엘 봉사단 지역사회 무료진료
5. 초청연수

미얀마
1.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2. 결핵검진사업
3. 자궁경부암 검진·교육사업
4. 초청연수

네팔
1. 지역보건의료지원
2.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3. 초청연수

를 위해 쓰입니다.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판매물품

가공식품, 문구, 잡화, 의류, 화장품, 푸드코트,
현지물품(몽골 캐시미어, 미얀마 커피 등)

몽골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자궁경부암검진·교육사업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초청연수

오시는 길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43길 7
라파엘센터

문의

02-744-7595